

자기 양가감, 사고-실제 융합과 강박 경향성의 관계[†]

윤 경 희
국립서울병원 임상심리과

박 기 환[‡]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자기 양가감과 사고-실제 융합이 침투적 인지, 이에 대한 평가, 통제방략을 포함하는 강박 경향성의 전 과정과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자기 양가감과 사고-실제 융합이 강박 경향성에 대하여 가지는 영향력, 강박 경향성에 대한 자기 양가감 및 사고-실제 융합의 상호작용 등을 탐색하였다. 대학생과 대학원생, 대학 졸업생 314명을 대상으로 자기 양가감 척도, 사고-실제 융합 척도, 침투적 인지 질문지, 침투 해석 질문지 단축형, 불안 증상 질문지, 우울 증상 질문지, 자기 존중감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Bhar(2004)의 자기 양가감 척도를 번안하여 타당화 하였다. 상관 분석 및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해 나타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양가감 및 사고-실제 융합은 침투적 인지의 발생, 이에 대한 평가, 통제방략을 포함하는 강박 경향성의 전 과정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상관은 자존감, 불안, 우울을 통제하고도 유의하였다. 둘째, 자기 양가감과 사고-실제 융합은 강박 경향성의 전 과정에서 불안, 우울, 자존감을 통제하고도 유의한 고유 변량을 나타내었다. 셋째, 자기 양가감이 강박 경향성에 미치는 효과는 사고-실제 융합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의 임상적 함의와 본 연구의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자기 양가감, 사고-실제 융합, 강박 경향성, 침투적 인지, 평가, 통제방략

[†] 이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수정·정리한 것이며, 일부 내용은 2008년 한국임상심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박기환, (420-74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산43-1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Tel: 02-2164-4924, E-mail: psyclinic@catholic.ac.kr

강박장애는 부적절하고 침투적으로 나타나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사고, 충동, 심상과 같은 강박사고나 이에 대한 반응으로 또는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에 따라 수행되는 강박행동을 주요 증상으로 하는 불안장애로, 적절한 개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만성적 고통을 초래하고 사회생활이나 개인의 역할에도 상당한 지장을 가져온다(APA, 1994).

강박장애의 인지 행동적 모형: 침투적 인지에 대한 잘못된 평가 및 통제방략

이에 강박장애의 이해와 치료를 돕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는데, 특히 인지 행동적 접근에서는 정상적인 침투적 인지에 대한 왜곡된 ‘평가’라는 인지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강박장애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침투적 인지’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원치 않는 침투적 사고, 심상, 충동을 통칭한다. 인지 행동적 접근에서는 우선 개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침투적 인지가 80%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을 일관되게 보고하며(Julien, O'Connor, & Aardema, 2007; Purdon & Clark, 1994; Rachman & de Silva, 1978; Salkovskis, 1985; Salkovskis & Harrison, 1984), 이처럼 일반적인 현상인 침투적 인지의 발생에 대하여 잘못된 평가를 하면서 침투적 인지가 강박사고로 발전하게 되고, 강박사고에 의도적으로 대처하려 하면서 강박행동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Clark, 2004; Rachman, 1997, 1998, 2003; Salkovskis, 1985). 즉 침투적 인지에 대해 보편적이거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평가하여 아무 행동도

안하고 무시하면 결국 침투적 인지의 발생 빈도가 줄어들다가 침투적 인지가 의식에서 사라질 수 있는 반면(Clark, 2004), 그 내용이나 발생 자체에 대하여 자신이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평가하여 과도한 책임감을 느낀다거나(Salkovskis, 1985), 개인적으로 중요하고 위협적인 현상으로 잘못 해석하거나(Rachman, 1997, 1998, 2003), 개인의 가치체계와 모순되며 이를 위협하는 것으로 평가할 때(Clark, 2004), 침투적 인지가 임상적인 강박사고로 발전할 수 있다. 침투적 인지의 발생과 내용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위협 자극의 범위와 강도가 잠재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따라서 더 많은 중립적인 자극들이 잠재적 위협으로 바뀌며 결국 강박적인 침투적 인지의 발생을 조장하는 상황을 늘리고 빈도도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다(Rachman, 1998).

침투적 인지에 대한 평가가 강박사고로의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대해 연구자들이 대체적으로 합의하는데 비해 각자 중시하는 평가의 내용은 달랐는데, OCCWG(1997)는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여 평가의 개념을 명료화하고 강박장애를 가진 사람들에서 주로 나타나는 평가를 크게 3가지로 정리하였다. ‘평가’란 원치 않는 침투적 인지의 발생과 같은 특정한 현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을 가리키며, 이는 기대, 해석 또는 판단의 형태를 띠고, 여러 하위 차원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가에는 (1) 사고의 중요성이나 이에 대한 책임감, (2)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 및 그것의 중요성, 이에 대한 책임감, (3)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막거나 그 결과를 취소시키는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된다.

강박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불안 및 비임상 통제 집단에 비해 사고의 과도한 중요성, 사고 통제의 중요성, 지나친 책임감의 3가지 측면에서 더 높은 비중을 보인다(OCCWG, 1997). ‘사고의 과도한 중요성’이란 침투적 인지가 존재하기만 해도 이것이 중요하다고 해석하게 되는 것이며, ‘사고 통제의 중요성’이란 침투적 인지에서 나타나는 위해를 피하고 침투적 인지의 발생으로 인한 주관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이런 생각들을 통제해야만 한다는 평가다. ‘지나친 책임감’은 심각하게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책임을 자신이 지녔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침투적 인지에 대하여 과장되고 잘못된 평가를 하면 불편감을 느끼게 되어 침투적 인지나 이와 관련된 불편감을 제거하거나 예방하고 완화시키기 위해, 또는 침투적 인지의 발생이나 그 내용에 부여된 의미를 바꾸기 위해 자발적이고 의도적이며 노력이 수반되는 내적 또는 외적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를 ‘통제방략’이라 하며, 이는 ‘중화행위’라는 용어와 별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이한주, 1999, 2002; Freeston, Ladouceur, Rhéaume, & Leger, 1998). 통제방략을 사용하면 일시적으로 불안과 불편감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왜곡된 평가의 내용을 수정, 반증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강박사고의 빈도를 증가시킨다는 점에 있어서 통제방략은 부적응적이고 역기능적이다(Freeston & Ladouceur, 1997). 이한주(1999, 2002)는 다양한 방식의 의도적인 통제방략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회피적 방략과 직면적 방략이 그것이며, 회피적 방략은 다시 부정적 회피적 방략과 중성적 회피적 방략으로 나뉜다. ‘부정적 회피적 방략’이란 침투적 인

지를 차단함으로써 회피하려는 것으로 부정적인 경험이나 여러 가지 정신 병리와 관련이 더 많다고 보고되며, 침투적 인지로부터 주의를 전환함으로써 이를 회피하려는 방략은 상대적으로 부정성이 덜하여 ‘중성적 회피적 방략’이라고 불린다. ‘직면적 방략’은 침투적 인지 자체를 통제하기보다 그것에 내포된 부정적인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도록 또는 원하는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실제적인 통제행동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이한주, 1999, 2002).

강박장애에서의 사고-실제 융합

침투적 인지의 발생에 대하여 잘못된 평가를 내리고 의도적인 통제방략을 사용하게 되는 강박장애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연구들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잘못된 평가나 통제방략을 이끄는 기저의 요인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으며, 이에 개인의 특정한 신념이나 가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저의 취약성에 대한 논의도 점차 이뤄지고 있다(Clark, 2004). 연구자들은 원치 않는 침투적 인지의 본성과 기능에 대한 지속적인 역기능적 신념이나 도식이 강박장애의 취약성과 관련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OCCWG(1997)는 침투적 인지에 대한 평가의 기저에는 어떤 상황에서든 보편적이며 비교적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가정이나 신념이 있으며, 침투적 인지와 역기능적인 신념이 상호작용한 결과 잘못된 평가가 일어나고 불편감과 불안감이 생기며 이에 대한 반응(대처)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강박 경향의 사람들은 침투적 인지가 가지는 개인적 중요성에 대하여, 그리고 무서운 결과를 피하기 위해 그런

생각을 통제할 필요성에 대하여 비현실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Clark, 1989; Clark & Purdon, 1993). 이러한 신념은 Wells와 Mathews(1994)가 정서장애에 대한 정보처리 모형에 근거하여 제안한 상위인지(metacognition)와도 일치된다. 상위인지란 인지에 대한 평가 또는 신념을 가리키며, 개인의 사고활동이나 대처행동을 이끄는 기능을 한다(Wells, 1997). Wells(1997)에 의하면, 세 가지 상위 인지적 신념, 즉 사고와 행동의 동등성에 대한 신념, 반추의 긍정적·부정적 효과에 대한 신념, 중화시킬 필요에 대한 신념이 특히 강박장애에서 중요하다. Clark(2004) 또한 Wells와 Mathews(1994)의 제안을 지지하며 부정적 정서성, 유약하고 양가적인 자기 평가와 함께 이러한 부적응적인 상위 인지적 신념을 강박장애의 취약성 요인으로 가정하였다.

최근 강박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지와 관련하여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개념인 사고-행위 융합도 이러한 상위 인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Wells, 1997). ‘사고-행위 융합(thought-action fusion: TAF)’이란 Rachman(1993)이 제안한 개념으로,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생각(thought)을 부정적인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action)과 동일시하는 경향을 가리킨다. 사고-행위 융합은 도덕성 융합과 가능성 융합으로 나뉘는데, ‘도덕성 융합’

은 생각하는 것과 그 행동을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같다는 믿음이며, ‘가능성 융합’은 생각을 하면 실제로 그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믿음이다.

Wells(1997)가 제안한 사고-사건 융합도 이러한 비현실적이며 역기능적인 신념에 속한다고 할 수 있었는데, ‘사고-사건 융합(thought-event fusion: TEF)’이란 강박적 사고(thought)가 현실의 부정적인 사건(event)을 일으킬 수 있거나 이미 일어난 것을 의미한다는 믿음이다¹⁾.

김기환(2006, 2008)은 사고-행위 융합, 사고-사건 융합에 대한 연구들을 개관한 뒤, 개념과 하위 차원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사고-실재 융합(Thought-Reality Fusion: TRF)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이것이 사고와 실제로 나타나는 행위, 사건 간의 융합을 반영한다고 소개하였다²⁾. 여기에는 앞서 제시되었던 사고-행위 융합의 하위유형이 포함되며, 사고-사건 융합의 하위유형으로는 가능성 융합, 반영 융합, 대처 융합이 제안되고 있다. ‘가능성 융합’은 생각을 하면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반영 융합’은 어떤 생각이 드는 것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의미한다는 믿음을, ‘대처 융합’은 생각하는 것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의 부정적인 결과를 막을 것이라는 믿음을 나타낸다. 김기

1) Wells(1997)는 Rachman(1993)이 제안한 사고-행위 융합이 상당히 유용한 개념이긴 하나, 하위유형에서 행위와 사건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즉, 주체의 의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행위’이고 그렇지 않다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Rachman(1993)의 가능성 융합은 실제로는 사고-사건 융합에 속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사고-행위 융합을 ‘특정한 생각을 하는 것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수정하여 정의하고 있다.

2) ‘실재’라는 단어는 ‘실제로 존재함’을 의미하며 존재론적인 함의가 있어, 사실 또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란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반면 ‘실제’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나 형편’을 가리키므로, 있는 그대로의 현실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데 보다 적절한 용어라 할 수 있다(국립국어연구원, 1999). 따라서 본고에서는 김기환(2006, 2008)의 ‘실재’를 ‘실제’로 바꾸어 사용하기로 한다.

환(2006, 2008)은 사고-실제 융합 척도(TRFS)를 사용해 강박사고와 사고-행위 융합, 사고-사건 융합의 관련성을 조사했는데, 강박사고가 사고-행위 융합, 사고-사건 융합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강박장애에서의 자기 양가감

자기개념이 다양한 종류의 심리적 활동이나 장애에 영향을 끼친다고 제안되고 다른 장애들에서는 활발히 연구되고 검증되어 온 데 비해, 강박장애에서는 이론적 제안이나 연구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었다는데, 근래 자기 양가감을 비롯한 자기상과 관련된 이론적 제안이나 연구들이 조금씩 발표되고 있다.

Guidano와 Liotti(1983)는 강박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으로 ‘자기 양가감’(self-ambivalence)을 제안하며, 이것이 완벽하고 도덕적이거나 순종적인 사람이 되려는 신념이나 내적 명령에 대한 동기를 제공하는 상위 구성개념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자기 양가감은 자기에 대한 양립할 수 없는 상반된 신념을 포함한다. 또한 자기에 대하여 두 가지의 대립적인 표상이 유지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개인의 묘사와 평가가 극에서 극으로 움직이고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자신의 가치나 도덕성 또는 자신이 사랑받을만한지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고 양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자아-이질적인 침투적 인지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침투적 인지를 자기에 대한 중요한 정의를 위협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결과적으로 침투적 인지의 내용에 따라, 자신을 악한, 살인자, 비도덕적인 사람 등으로 여

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후 다른 연구자들도 강박장애에서의 자기개념에 대하여 제안하였는데, Rachman(1997, 1998, 2003)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침투적 인지 중 어떤 것이 강박사고가 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개인의 가치체계에서 중요한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침투적 인지를 자기감, 믿음 및 가치와 불일치하는 것으로 평가할 때 강박사고가 악화될 수 있으며(Clark & Purdon, 1993; Purdon & Clark, 1999), 원치 않는 침투적 인지를 자기의 소중한 가치와 이상에 대한 위협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향은 유약한 자기관의 맥락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Clark, 2004).

자기 구조와 침투적 인지에 대한 민감성이 관련된다는 이론적 제안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도 지지되고 있다. 강박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덜 도발적인 강박사고들에 비해 보다 혼란을 일으키는 강박사고들을 보고할 때 자신의 중요한 측면과 더 많이 모순된다고 평가하였다(Rowa, Purdon, Summerfeldt, & Antony, 2005). 이와 더불어 도덕성이나 직업적 유능성, 사회적 수용 등 자기상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민감하게 여기는 영역들에서 스스로 무능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강박 증상을 더 많이 보이고 강박 관련 신념들도 더 많이 유지하고 있었다(Doron, Kyrios, & Moulding, 2007). Bhar(Bhar, 2004; Bhar & Kyrios, 2000, 2007)는 Guidano와 Liotti(1983)의 제안에 기반을 두고 강박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자기 양가감을 조사하였는데, 강박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비임상 통제집단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자기 양가감을 나타냈다. 따라서 자기개념, 보다 구체적으로 자기 양가감은 강박장애의 취약성 요

인일 가능성이 제기되며(Clark, 2004), 자기 양가감이 강박사고를 설명하고 치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국내에서는 이를 다루는 연구를 찾아보기가 매우 힘든 실정이다.

요약하자면, 원치 않는 침투적 인지의 발생에 대하여 잘못된 평가를 하고 역기능적인 통제방략을 사용함으로써 정상적인 침투적 인지가 강박사고로 발전하고 강박행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잘못된 평가와 통제방략을 사용하는 데 있어 양가적인 자기개념이나 사고-실제 융합과 같은 역기능적 신념이 취약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데 자기 양가감과 침투적 인지, 평가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들은 있으나, 자기 양가감이 강박장애(또는 강박경향성)의 전 과정, 즉 '침투적 인지의 발생 → 평가 → 통제방략 사용'과 어떤 관련을 맺는지, 강박장애의 전 과정에 고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국내에서는 자기 양가감을 포함하여 자기개념과 강박장애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상당히 드문 실정이다. 사고-실제 융합의 경우에도, 이를 침투적 인지, 평가, 통제방략 각각과 연관 지어 살펴본 연구들은 있으나, 강박장애의 전 과정을 함께 조사한 경우 역시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등 일반인을 표본으로 자기 양가감과 사고-실제 융합이 강박 경향성의 전 과정과 가지는 연관을 조사하고, 자기 양가감과 사고-실제 융합이 강박 경향성에 대하여 가지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 양가감과 사고-실제 융합이 서로 관련되는지, 상호작용하여 강박 경향성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자기 양가감과

구별될 필요가 있는 자존감, 강박장애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불안 및 우울의 효과는 통제할 것이다(Bhar, 2004; Turner, Beidel, Stanley, & Heiser, 2000).

방 법

참여자

수도권 소재 대학교의 대학생과 대학원생, 졸업생 등 314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전체 피험자의 평균 연령은 22.85세(표준편차 4.42)였으며, 이 중 남자 80명(25.5%)의 평균 연령은 23.56세(표준편차 2.85), 여자 234명(74.5%)의 평균 연령은 22.60세(표준편차 4.83)였다. 참여자 가운데 대학생은 285명(90.8%)이고 대학원생은 23명(7.3%), 대학 졸업생은 6명(1.9%)이었다.

측정 도구

자기 양가감 척도(Self Ambivalence Measure: SAM). Bhar(2004)가 전반적인 자기 가치에 대한 양가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19개 문항의 자기 보고형 검사로, 본 연구자가 번안, 타당화하여 사용하였다. 5점 척도(0: 전혀 그렇지 않다 ~ 4: 매우 그렇다) 상에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단일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번안 타당화를 위해 연구자가 일차로 번안한 뒤, 영어에 능숙한 심리학과 석사 및 박사 과정생 2명과 함께 검토하고 논의하여 표현을 수정하였다. 그리고 이중 언어 사용자인 한국인 1명이 영문으로 역번역한 후 척도의 원래 문항과 비교, 검토했다. 이 후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서 총 212명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SAM, 자기 존중감 척도, Beck 우울 척도, Beck 불안 척도가 포함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여자 162명, 남자 50명). 전체 피험자의 평균 연령은 20.4세(표준편차 2.61)였다.

SAM의 요인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문항-총점 간 원상관행렬을 구하였다, $r=.34\sim.80$, $p<.01$.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에서도 요인가능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chi^2=22.96$, $p<.001$. Kaiser-Meyer-Olkin의 표집 적합성 측정은 .91로 좋은 적합성을 나타냈다. SAM의 19문항 전체를 대상으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개수를 미리 지정하지 않고 요인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을 모두 추출할 경우에는 공통요인이 4개로 나타났으나, 스크리 도표의 결과는 뚜렷하게 1개의 요인을 나타냈다. 따라서 주축분해 방법에 의해 1요인을 추출하였다.

SAM의 Cronbach's α 는 .93으로 높게 나타나 SAM의 문항들이 척도가 측정하려는 대상을 매우 일관되게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별타당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자기 양가감과 유사하지만 변별되는 구성개념인 자기 존중감, 자기개념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불안, 우울을 측정하는 질문지들과의 상관을 분석했다. 자기 양가감은 자존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나 상관의 정도는 중간 정도로, 높지 않았다, $r=.50$, $p<.01$. 이것은 자기 양가감이 자존감과 관련이 있으나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선행 연구(Bhar, 2004)와 일치하는 결과다. 자기 양가감은 또한 불안, $r=.47$, $p<.01$, 및 우울, $r=.56$, $p<.01$, 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나, 상관은 중간 정도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 양가감이 불안이나 우울과 연관되어 있

으나, 이 두 요인에 완전히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변별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4이었다.

사고-실제 융합 척도(Thought-Reality Fusion Scale: TRFS). 김기환(2006, 2008)이 사고-행위 융합과 사고-사건 융합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 보고식 검사다. 개념의 정의에 따라 9가지의 하위차원으로 나뉘고, 문항의 내용은 4가지의 강박사고(성, 공격, 오염, 확인)를 반영한다. 총 72문항으로 4점 척도(0: 전혀 그렇지 않다 ~ 3: 매우 그렇다) 상에서 평정한다. Cronbach's α 는 침투적 인지의 속성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 구하였는데, 자생성 차원 .94, 반응성 차원 .95였다. 3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5, 기존 척도인 사고-행위 융합척도와 의 공존타당도는 .5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TRFS를 자생성 차원과 반응성 차원으로 나누지 않았고 TRFS의 전체 Cronbach's α 를 구하였으며, 그 값은 .97이었다.

침투적 인지 질문지(Revised Obsessional Intrusions Inventory: ROI). Purdon과 Clark(1993)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박적 사고, 상상, 충동의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하였으며, 전·후반부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총 52문항)는 다양한 내용의 침투적 인지에 대하여 7점 척도(0: 전혀 없다 ~ 6: 하루에도 여러 번 있다) 상에서 평정하게 되어 있다. 후반부에서는 전반부의 52개의 사고 중 가장 불편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한 한 가지에 대한 평가와 통제방략을 묻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한주(1999)가 수정 번안한

것(part I, II로 구성됨)을 사용하였는데,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개방형 질문, 강박사고에 대한 정서적 경험 및 평가, 통제방략을 사용한 효과에 대한 질문을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part I(침투적 인지)의 Cronbach's α 는 .95, part II(통제방략)의 Cronbach's α 는 .83이었다.

침투 해석 질문지(III) 단축형. OCCWG(2001)는 강박사고에 대한 평가에서 세 가지 주요 차원(사고의 과도한 중요성, 사고 통제의 중요성, 책임감)을 측정하기 위해 침투 해석 질문지-31(III-31)을 개발하였다. 침투 해석 질문지 단축형은 침투 해석 질문지-31의 원문항 내용과 OCCWG(1997)가 세 가지 평가 차원에 대해 제안한 개념 및 정의에 근거하여 이한주(1999)가 제작한 것³⁾으로, 31개의 문항을 12개로 줄이고 문항의 내용과 진술 방식도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8이었다.

자기 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 SES). Rosenberg(1965)가 전반적인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10문항의 자기 보고형 검사로,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한국판 자기 존중감 척도는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 상에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8이었다.

Beck 불안 척도(BAI). Beck, Epstein, Brown과 Steer(1988)가 정신과 전집에서 불안의 심각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 보고형 검사로, 본

연구에서는 권석만(199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1문항으로 4점 척도(0: 전혀 느끼지 않았다 ~ 3: 심하게 느꼈다) 상에서 평정한다. 한국판 Beck 불안 척도의 Cronbach's α 는 .93, 반분신뢰도는 .89,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4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3이었다.

Beck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Beck, Ward, Mendelson, Mock와 Erbaugh(1961)가 우울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21문항의 자기 보고형 검사로,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총 21문항 0~3점 척도이다. 한국판 Beck 우울 척도의 Cronbach's α 는 .98, 반분신뢰도는 .91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절차

대학교의 강의 시간에 질문지를 실시하거나 도서관 및 학과 사무실에서 개별적으로 질문지를 배포하여 응답을 받았다. 먼저 침투적 인지 질문지(ROI) part I에서 52개의 침투적 인지 각각에 대해 경험 빈도를 평정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part II에서는 앞의 침투적 인지중에서 가장 불편감이 큰 것을 하나 선택한 후, 이에 대한 평가(침투 해석 질문지(III) 단축형), 통제방략(ROI part II) 관련 질문에 응답하도록 했다. 이후 자기 양가감 척도(SAM), 사고-실제 융합 척도(TRFS), 자기 존중감 척도(SES), Beck 불안 척도(BAI), Beck 우울 척도(BDI) 순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3) 이한주(1999)가 III-31을 번안하여 연구를 진행할 당시, OCCWG의 III-31은 최종 신뢰도, 타당도 분석을 마치고 출판만 남겨 놓은 상태였다고 한다. OCCWG의 III-31은 2001년 발표되었다.

자료 분석

자기 양가감 및 사고-실제 융합이 강박 경향성과 관련을 맺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불안 및 우울, 자존감을 통제 한 후에도 자기 양가감과 사고-실제 융합이 고유의 변량을 가지는지, 자기 양가감과 사고-실제 융합이 강박 경향성에 대한 영향력에서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자기 양가감과 사고-실제 융합이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SPSS 12.0이 사용되었다.

결 과

자기 양가감, 사고-실제 융합, 침투적 인지와 이에 대한 평가, 통제방략, 불안, 우울, 자존감 척도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그 값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자기 양가감, 사고-실제 융합과 변인들의 상관

자기 양가감 및 사고-실제 융합과 강박 경향성(침투적 인지, 평가, 통제 방략)의 관계를 알아보

표 1. 연구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평균	표준편차
자기 양가감	34.24	15.34
사고-실제 융합	30.11	25.89
침투적 인지	42.66	27.16
평가	16.02	12.67
통제방략	26.37	13.54
불안	14.48	11.17
우울	29.85	7.46
자존감	50.83	10.16

표 2. 자기 양가감, 사고-실제 융합과 변인들의 상관 및 부분상관

변인	자기 양가감			사고-실제 융합		
	상관	부분상관		상관	부분상관	
		자존감 통제	불안, 우울 통제		자존감 통제	불안, 우울 통제
침투적 인지	.42**	.38**	.31**	.43**	.41**	.32**
평가	.40**	.39**	.30**	.30**	.29**	.20**
통제 평가	.32**	.33**	.24**	.16**	.15**	.05**
중요성 평가	.31**	.30**	.23**	.27**	.26**	.19**
책임감 평가	.34**	.35**	.26**	.33**	.32**	.25**
통제방략	.36**	.38**	.27**	.31**	.31**	.20**
부정회피방략	.35**	.34**	.25**	.29**	.28**	.18*
중성회피방략	.26**	.29**	.21**	.23**	.23**	.15*
직면방략	.20**	.22**	.12**	.25**	.26**	.18*
자존감	-.45**	-	-.16**	-.18**	-	-.01
우울	.52**	.34**	-	.25**	.17*	-
불안	.51**	.41**	-	.45**	.42**	-

* $p < .05$, ** $p < .01$.

기 위해, 먼저 상관 분석을 실시한 뒤 자존감을 통제한 부분 상관 분석, 불안 및 우울을 통제한 부분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그 결과, 자기 양가감은 침투적 인지, 평가, 통제방략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각각 $r=.42$, $r=.40$, $r=.36$, all $ps<.01$. 상관은 자존감, 불안 및 우울을 통제 후에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존감 통제 시 각각 $r=.38$, $r=.39$, $r=.38$, all $ps<.01$; 불안 및 우울 통제 시 각각 $r=.31$, $r=.30$, $r=.27$, all $ps<.01$. 사고-실제 융합도 침투적 인지, 평가, 통제방략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며, 각각 $r=.43$, $r=.30$, $r=.31$, all $ps<.01$, 상관은 자존감, 불안 및 우울을 통제 후에도 유의하였다, 자존감 통제 시 각각 $r=.41$, $r=.29$, $r=.31$, all $ps<.01$; 불안 및 우울 통제

시 각각 $r=.32$, $r=.20$, $r=.20$, all $ps<.01$.

자기 양가감과 사고-실제 융합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 양가감과 사고-실제 융합 사이에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r=.46$, $p<.01$. 또한 자존감, 불안 및 우울과 같은 변인들을 통제 후에도 상관이 유의하였다, 자존감 통제 시 $r=.44$, $p<.001$; 불안 및 우울 통제 시 $r=.33$, $p<.01$.

침투적 인지에 대한 예언변인들의 회귀분석

자기 양가감과 사고-실제 융합, 이 둘의 상호작용이 강박 경향성의 전 과정에 대하여 고유의 변량을 가지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

표 3. 침투적 인지를 예측하는 변인들에 대한 위계적 회귀 분석

모형	준거변인: 침투적 인지						
	β	t	R^2	Adj. R^2	ΔR^2	ΔF	
1	불안	.35	5.60***	.14	.13	.14	16.21***
단	우울	-.05	-.58				
계	자존감	-.09	-1.22				
2	불안	.20	3.13**	.22	.21	.09	34.81***
단	우울	-.04	-.56				
계	자존감	-.08	-1.23				
	융합	.33	5.90***				
3	불안	.16	2.44*	.26	.25	.04	15.34***
단	우울	-.10	-1.38				
계	자존감	-.04	-.59				
	융합	.26	4.42***				
	양가감	.25	3.92***				
4	불안	.15	2.23*	0.26	.25	.00	.81
단	우울	-.10	-1.37				
계	자존감	-.04	-.62				
	융합	.24	3.93***				
	양가감	.27	4.02***				
	융합×양가감	.05	.90				

* $p < .05$, ** $p < .01$. *** $p < .001$.

하였다. 먼저 자기 양가감과 사고-실제 융합이 침투적 인지에 대하여 가지는 고유한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침투적 인지’를 준거변인으로, ‘불안’, ‘우울’, ‘자존감’을 통제변인으로, ‘융합’, ‘양가감’, ‘융합×양가감’을 예언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융합’은 ‘불안’과 ‘우울’, ‘자존감’을 통제한 후에도 주효과가 9%로 유의하였으며, $F(1, 309)=34.81, p<.001$, ‘양가감’의 경우 ‘불안’과 ‘우울’, ‘자존감’, ‘융합’을 통제한 후에도 4%의 설명량의 증가를 나타냈다, $F(1, 308)=15.34, p<.001$. 즉, 자기 양가감과 사고-실제 융합의 정도가 클수록 침투적 인지를 나타낼 가능성이 많았다. 그러나 ‘융합

×양가감’을 투입한 결과, 설명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Delta R^2=.00, F(1, 307)=.81, p=.37$.

평가에 대한 예언변인들의 회귀분석

자기 양가감과 사고-실제 융합, 이 둘의 상호작용이 침투적 인지에 대한 평가에서 고유의 변량을 가지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평가’를 준거변인으로, ‘불안’, ‘우울’, ‘자존감’을 통제변인으로, ‘융합’, ‘양가감’, ‘융합×양가감’을 예언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융합’은 ‘불안’, ‘우울’, ‘자존감’을 통제한 후에도 4%의 고유한 변량을 나타냈다, $F(1,$

표 4. 평가를 예측하는 변인들에 대한 위계적 회귀 분석

모형		준거변인: 평가						
		β	t	R^2	Adj. R^2	ΔR^2	ΔF	
1	불안	.29	4.51***	.10	.09	.10	11.09***	
	우울	.07	.82					
	자존감	.05	.73					
2	불안	.20	2.86**	.13	.12	.04	12.32**	
	우울	.07	.87					
	자존감	.06	.78					
계	융합	.21	3.51**					
3	불안	.14	2.03*	.19	.18	.06	23.60***	
	우울	-.01	-.15					
	자존감	.11	1.60					
	계	융합	.11					1.84
	양가감	.33	4.86***					
4	불안	.15	2.19*	.20	.18	.00	1.09	
	우울	-.01	-.16					
	자존감	.11	1.63					
	계	융합	.13					2.07*
		양가감	.31					4.51***
	융합×양가감	-.06	-1.04					

* $p < .05$, ** $p < .01$. *** $p < .001$.

309)=12.32, $p < .001$. ‘양가감’은 ‘불안’과 ‘우울’, ‘자존감’, ‘융합’을 통제한 후에도 6%의 고유의 변량을 보였다, $F(1, 308)=23.60$, $p < .001$. 즉 융합과 자기 양가감이 높을수록 침투적 인지에 대하여 잘못된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많았다. 그러나 ‘융합×양가감’은 유의한 고유의 변량을 나타내지 않았다, $\Delta R^2=.00$, $F(1, 307)=1.09$, $p=.30$.

통제방략에 대한 예언변인들의 회귀분석

자기 양가감과 사고-실제 융합이 통제방략에 대하여 가지는 고유의 설명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통제방략’을 준거변인으로, ‘불안’, ‘우울’, ‘자존감’

을 통제변인으로, ‘융합’, ‘양가감’, ‘융합×양가감’을 예언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그 결과, ‘불안’, ‘우울’, ‘자존감’을 통제한 후에도 ‘융합’은 4%의 고유의 변량을 나타냈다, $F(1, 309)=13.47$, $p < .001$. 또한 ‘양가감’은 ‘불안’과 ‘우울’, ‘자존감’, ‘융합’을 통제한 후에도 5%의 추가 설명력을 보이며 유의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났다, $F(1, 308)=18.71$, $p < .001$. 즉 자기 양가감과 사고-실제 융합의 정도가 클수록 침투적 인지에 대하여 역기능적 통제방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융합×양가감’은 고유의 변량을 나타내지 않았다, $\Delta R^2=.00$, $F(1, 307)=0.18$, $p=.67$.

표 5. 통제방략을 예측하는 변인들에 대한 위계적 회귀 분석

모형	준거변인: 통제방략						
		β	t	R^2	Adj. R^2	ΔR^2	ΔF
1	불안	.33	5.14***	.10	.10	.10	11.97***
	우울	.04	.45				
	계	.10	1.45				
2	불안	.23	3.40**	.14	.13	.04	13.47***
	우울	.04	.49				
	자존감	.11	1.51				
	계	.22	3.67***				
3	불안	.18	2.65**	.19	.18	.05	18.71***
	우울	-.03	-.42				
	자존감	.16	2.25*				
	계	.13	2.15*				
	양가감	.29	4.33***				
4	불안	.19	2.68**	.19	.18	.00	.18
	우울	-.03	-.42				
	자존감	.16	2.26*				
	계	.14	2.17*				
	양가감	.29	4.12***				
	융합×양가감	-.02	-.43				

* $p < .05$, ** $p < .01$. *** $p < .001$.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 양가감과 사고-실제 융합이 강박 경향성과 관련되는지 그리고 강박 경향성에 대하여 고유의 변량을 가지는지, 그 정도는 어떠한지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분석 결과, 우선 자기 양가감과 사고-실제 융합은 침투적 인지의 발생 및 이에 대한 평가, 통제방략에 이르는 강박 경향성의 전 과정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자존감, 불안, 우울과 같은 변인들을 통제했을 때에도 상관은 유의하였다. 자기 양가감이나 사고-실제 융합은 평가나 통제방략의 하위 차원 각각과도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따라서 자기 양가감이나 사고-실제 융합이 침투적 인지나 이에 대한 평가, 통제방략과 관련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강박 경향성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자기 양가감과 사고-실제 융합은 자존감, 우울, 불안을 통제한 후에도 침투적 인지 및 이에 대한 평가, 통제방략에 대하여 고유의 영향력을 나타냈다. 따라서 자기 양가감과 사고-실제 융합은 강박 경향성과 단순히 관련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박 경향을 유발하는 데에도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 양가감이나 사고-실제 융합이 강박장애에서 중요하다는 선행 이론 및 경험적 연구(김기환, 2006, 2008; Bhar, 2004; Bhar & Kyrios, 2007; Guidano & Liotti, 1983)와 일치한다. 또한 자기 양가감이나 사고-실제 융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침투적 사고의 발생이나 이에 대한 잘못된 평가, 역기능적 통제방략에 대한 연구나 치료적 개입이 적절한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기 양가감과 사고-실제 융합은 강박 경향성의 각 과정에 대하여 가지는 영향력의 정도가 다소 달랐는데, 자기 양가감은 평가 및 통제방략에 대하여, 사고-실제 융합은 침투적 인지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조금 더 큰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는 미세한 차이이긴 하나 자기 양가감과 사고-실제 융합이 강박장애에 미치는 영향이 장애의 과정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강박 장애를 치료할 때 장애의 과정에 따라 치료의 주된 목표를 조금씩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음을 함의한다.

본 연구에서 자기 양가감과 자존감은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자신의 가치나 도덕성, 사랑받을 만한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할수록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따라서 여러 정신 병리에서 낮은 자존감을 향상시키거나 자존감 저하의 가능한 원인들을 살펴볼 때, 자기 양가감도 고려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겠다. 더욱이 본 연구 대상자들은 성인기 초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성인기 초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반적 및 도덕적 정체감을 확립하고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시기이며(Bhar, 2004), 성인기 초기에서 중기 사이에 자기 정체감이 점차 확고해진다(Waterman, 1982)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시기에 자신의 전반적 및 도덕적 정체감과 관련된 양가감을 통합하는 것이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자기 정체감 확립에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자기 양가감과 사고-실제 융합은 강박 경향성에 대하여 각각 주효과를 가지지만 예상과 달리 이 둘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 때문에 이 두 요인이

상호작용하지 않는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는데, 이는 우선 상호작용효과에 비해 각각의 주효과가 크기 때문일 수 있겠다. 또한 자기 양가감과 사고-실제 융합의 상관관이 유의하게 나타나는 점과 관련이 될 가능성도 있다. 즉, 통제변인들과 자기 양가감이나 사고-실제 융합을 포함한 예언변인들은 공차한계(Tolerance) 값과 분산팽창요인(VIF) 값이 모두 적정 범위 내에 속하는 상태로 다중 공선성의 위험은 시사되지 않으나⁴⁾, 자기 양가감과 사고-실제 융합이 중간 정도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박 경향성의 취약성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 상 두 변인을 동등한 수준으로 다루었으나, 자기개념이 개인의 속성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나타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험이 평가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는 기존 연구들(Markus, 1977; Safran, Segal, Hill, & Whiffen, 1990)이나 강박장애와 관련된 신념 영역들이 모두 자기 가치감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Bhar, 2004) 등을 고려할 때, 자기 양가감이 사고-실제 융합과 위계적으로 관련될 가능성도 있겠다.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이 표본과 관련된 결과일 수도 있다. 본 연구는 강박경향성이 연속선상에 있다는 가정 하에, 강박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대학생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본 연구 표본에서 강박성향, 자기 양가감, 사고-실제 융합의 평균은 리커트 척도 상의 평균치들보다 낮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양가감 및 사고-실제 융합이 강박 경향성의 전체 과

정, 즉 침투적 인지 및 이에 대한 평가, 통제방략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를 직접 조사하였다. 이전 연구에서 자기 양가감이나 사고-실제 융합을 강박 경향성의 한두 부분과 연관 지어 살핀 경우는 있으나, 전체 과정을 함께 조사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자기 양가감이나 사고-실제 융합이 강박장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전체 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양가적인 자기관과 상위 인지적 신념, 부정적 정서성이 강박장애의 취약성으로 작용한다는 Clark(2004)의 제안 가운데 일부를 경험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셋째, 자기 양가감이 강박 경향성과 관련되는지를 국내 표본을 대상으로 처음 살펴보고 있으며, 그 결과 자기 양가감과 강박 경향성이 정적상관을 가지고 있다는 선행 연구(Bhar, 2004; Bhar & Kyrios, 2000, 2007)를 확인하였다. 자기 양가감이 강박 장애의 발생 및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는 강박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자기 개념, 특히 자기 양가감을 살펴보는 것이 강박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심리적 고통이나 기능적 장애를 이해하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데 유용할 것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다음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자기 양가감이 강박경향성과 관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박장애에 특정적인 취약성인지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선행 연구(Bhar, 2004; Bhar & Kyrios, 2007)에서는 자기 양가감이 다른 불안 집단과도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그 정도는 강박 장애 집단에서

4) 공차한계(Tolerance) 값은 대부분 .44 이상으로 모두 .30 이하가 아니고, 분산팽창요인(VIF) 값은 1.20과 2.27 사이의 범위를 나타내며 10보다는 매우 작은 값이므로 독립변인들 간의 관련성이 낮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타나는 상관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강박 경향성 집단을 다른 불안 집단과 직접 비교하지 않고, 불안을 통제 변인으로만 다루었다. 그런데 단순히 상관만 살펴보면, 자기 양가감은 강박 경향성보다는 불안 및 우울과 더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로는 자기 양가감이 강박장애에 특정적인지 여부를 결정짓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강박장애 집단과 다른 불안 집단에서 자기 양가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에 따라 자기 양가감 및 사고-실제 융합이 강박 경향성의 취약성이 된다고 제안하였으나, 연구가 한 시점에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성을 확인할 수 없다. 시간차를 두고 변인들의 관계를 비교하거나 실험을 통하여 인과관계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셋째, 강박경향성이 강박장애와 동일하지 않으나 침투적 인지는 80%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정상인의 침투적 인지와 강박장애 환자들의 강박사고는 내용과 형태는 물론 발생 패턴, 제거의 용이성과 발생 빈도의 관계 등 과정적 측면에서도 유사하다고 보고되고 있다(Clark, 2004; Julien, O'Connor, & Aardema, 2007; Purdon & Clark, 1994; Rachman, 1997, 2003; Rachman & de Silva, 1978; Salkovskis, 1985; Salkovskis & Harrison, 1984).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인에게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검토하여 강박장애를 이해해 보려 시도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들을 도출하였으나 본 연구 표본에서 강박경향성의 평균값이 리커트 척도 상의 평균값보다 낮아 강박경향성의 정도가 낮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결과를 성급하게 강박장애에 일반화할 수는 없었으며, 임상군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연구 대상과 관련하여, 강박장애에서 남녀의 빈도는 비슷하나 남자의 경우 6~15세 사이에, 여자의 경우 20~29세 사이에 가장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APA, 1994),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를 주로 20대 초반인 대학생으로 하였고 참가자 중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아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자기 양가감과 사고-실제 융합은 강박 경향성에 대하여 상호작용하는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각각의 주효과가 크기 때문이거나 자기 양가감과 사고-실제 융합이 위계적으로 관련을 맺을 가능성 또는 강박 경향성을 가진 대학생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표본의 한계 때문일 수 있으므로 임상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두 요인의 상호작용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참 고 문 헌

- 권석만 (1992). Differential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automatic thoughts in depression: an integrated cognitive model of depression. Queensland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국립국어연구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 김기환 (2006). 사고-행위 융합과 사고-사건 융합의 측면에서 본 강박사고의 하위유형.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기환 (2008). 사고-행위 융합과 사고-사건 융합의 측면에서 본 강박사고의 하위유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1), 167-189.

- 이영호, 송중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98-113.
- 이한주 (1999). 자생성 강박사고와 반응성 강박사고에 대한 평가와 통제방략의 차이.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한주 (2002). 자생성 강박사고와 반응성 강박사고; 임상집단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57-74.
- 이훈진, 원호택 (1995). 자기개발과 편집증적 경향.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과학연구소 4(2), 15-29.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uthor.
- Beck, A., Ward, C. H., Mendelson, M., Mock, J. & Erbaugh, J. (1961).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 561-571.
- Beck, A., Epstein, N., Brown, G., & Steer, R. (1988). An inventory for measuring clinical anxiety: Psychometric properties.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56, 893-897.
- Berle, D., & Starcevic, V. (2005). Thought-action fusion: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future direction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5, 263-284.
- Bhar, S. (2004). *Self-Ambivalence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Unpublished Ph. D. thesis, University of Melbourne, Melbourne, Australia.
- Bhar, S., & Kyrios, M. (2000). Ambivalent self-esteem as meta-vulnerability for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In R. G. Craven & H. W. Marsh (Eds.), *Self-concept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Advances from the new millennium*(pp. 143-156). Sydney, Australia: Self-concept Enhancement and Learning Facilitation Research Centre, University of Western Sydney.
- Bhar, S., & Kyrios, M. (2007). An investigation of self-ambivalence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 1845-1857.
- Clark, D. A. (1989). *A schema control model of negative thoughts*. Paper presented at the World Congress of Cognitive Therapy, Oxford, UK.
- Clark, D. A., & Purdon, C. L. (1993). New perspectives for a cognitive theory of obsessions. *Australian Psychologist*, 28, 161-167.
- Clark, D. M. (2004). *Cognitive-behavioral therapy for OCD*. New York,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Doron, G., Kyrios, M., & Moulding, R. (2007). Sensitive domain of self-concept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OCD): Further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model of OCD.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1, 433-444.
- Freeston, M. H., Ladouceur, R., Rhéaume, J., & Leger, E. (1998). Applications of cognitive models of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to clinical practice. *Behavior and Cognitive Therapy Today (First Edition)* (pp. 117-126). Selected Proceedings of the XXVII Congress of the European Association for Behavioral and Cognitive Therapies, Venice 1997.
- Freeston M. H., & Ladouceur, R. (1997). What do patient do with their obsessive thought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5, 335-348.
- Guidano V., & Liotti, G. (1983). *Cognitive processes and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Julien, D., O'Connor, K. P., & Aardema, F. (2007). Intrusive thoughts, obsessions, and appraisals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 critical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7*, 366-383.
- Markus, H. (1977). Self-schemata and processing information about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35*, 63-78.
- Lee, H. J., & Kwon, S. M. (2003). Two different types of obsession: autogenous obsessions and reactive obsession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41*, 11-19.
- Obsessive Compulsive Cognitions Working Group (OCCWG) (1997). Cognitive assessment of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5*, 667-681.
- Obsessive Compulsive Cognitions Working Group (OCCWG) (2001).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Obsessive Beliefs Questionnaire and the Interpretation of Intrusions Inventory.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9*, 987-1006.
- Purdon, C. L., & Clark, D. A. (1993). Obsessive intrusive thoughts in nonclinical subjects. part I. Content and relation with depressive, anxious and obsessional symptom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1*, 713-720.
- Purdon, C. L., & Clark, D. A. (1994). Perceived control and appraisals of obsessional intrusive thought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Behavioral and Cognitive Psychology, 22*, 269-285.
- Purdon C. L., & Clark, D. A. (1999). Metacognition and obsessions.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6*, 102-110.
- Rachman, S. J. (1993). Obsessions, responsibility and guilt.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1*, 149-154.
- Rachman, S. J. (1997). A cognitive theory of obsession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5*, 793-802.
- Rachman, S. J. (1998). A cognitive theory of obsessions: elaboration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6*, 385-401.
- Rachman, S. J. (2003). *The treatment of obsessions*.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Rachman, S. J., & de Silva, P. (1978). Abnormal and normal obsession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16*, 233-248.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wa, K., Purdon, C., Summerfeldt, L. J., & Antony, M. M. (2005). Why are some obsessions more upsetting than other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43*, 1453-1465.
- Safran, J., Segal, Z., Hill, C., & Whiffen, V. (1990). Refining strategies for research on self-representations in emotional disorder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143-160.
- Salkovskis, P. M. (1985). Obsessional-compulsive problem: A cognitive-behavioral analysi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23*, 571-583.
- Salkovskis, P. M., & Harrison, J. (1984). Abnormal and normal obsessions: A replicaion.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22*, 1-4.
- Turner, S. M., Beidel, D. C., Stanley, M. A., & Heiser, N. (2000).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In P. B. Sutker & H. E. Adams(Eds.), *Comprehensive Handbook of Psychopathology, 3rd ed*(pp. 155-182). New York, New York: Springer.
- Waterman, A. S. (1982). Identity development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An extension of theory and a review of research. *Developmental Psychology, 18*, 341-358.

Wells, A. (1997). *Cognitive therapy of anxiety disorders: A practice manual and conceptual guide*. Chichester, UK: Wiley.

Wells, A., & Matthews, G. (1994). *Attention and emotion: A clinical perspective*. Hove, UK: Erlbaum.

원고접수일: 2011년 9월 6일

게재결정일: 2012년 1월 17일

Relations of Self-Ambivalence, Thought-Reality Fusion, and Obsessive-Compulsive Tendency

Kyung-Hee Yoon

Department of Clinical Psychology
Seoul National Hospital

Kee-Hwan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was purposed to verify relations of self-ambivalence, thought-reality fusion, and obsessive-compulsive tendency, and the interaction of self-ambivalence and thought-reality fusion. The association was investigated between self-ambivalence, thought-reality fusion and obsessive-compulsive tendency, including intrusive thoughts, appraisal and control strategies to them. Before that, the Self-Ambivalence Measure (SAM) was translated into Korean which was validated to measure self-ambivalence. A total of 314 university students and graduates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which contained Self-Ambivalence Measure (SAM), Thought-Reality Fusion Scale (TRFS), Revised Obsessional Intrusions Inventory (ROI), shortened form of Interpretation of Intrusions Inventory (III), Beck Anxiety Inventory (BAI),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and Self-Esteem Scale (SES). 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self-ambivalence and thought-reality fusion were related significantly to obsessive-compulsive tendency and the relations were significant, even after controlling the variables, such as self-esteem, depression, and anxiety. (2) Self-ambivalence and thought-reality fusion had significant main effects on obsessive-compulsive tendency, which includes intrusive thoughts, appraisal and control strategies even after controlling the variables, such as self-esteem, depression, and anxiety. (3) The interaction of self-ambivalence and thought-reality fusion was not significant to the effect on the obsessive-compulsive tendency. Additionall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self-ambivalence, thought-reality fusion, obsessive-compulsive tendency, intrusive thought, appraisal, control strategy

